



- **폭우 예고 했는데..안전불감증 만연** - 도민일보
도 소방관계자 장마철 기상상황 확인 철저 및 집중호우시 야영·산행 주의 당부
- **361mm 물폭탄 다리 무너지고 빗길사고 속출** - 도민일보외 7개 언론사
홍천 광원리 여가구 교립 인제 국도 지방도 침수 빗길 교통사고 쏘
- **화재출동 소방차 5분내 도착률 강원소방 하위권** - 춘천MBC
년 기준 분이내 소방차 현장 도착률 로 전국 번째로 낮아

- 소방서 언론동향 -

- 춘천 국립대 소방시스템 강연이보
- 원주 대학생 소방행정 실습지도 엔사이드
- 강릉 제 대 이지호 강릉소방서장 취임식 아시아뉴스통신
- 동해 고속진자 임용장 수여 외 건 - 소방방재신문 등
- 태백 승진 발령자 임명장 수여식 소방방재신문 등
- 속초 장마철 대비 소방장비 점검 외 건 - 소방방재신문 등
- 삼척 제 대 주하중 삼척소방서장 취임식 - 도민일보 등
- 홍천 제 대 이기중 홍천소방서장 취임식 외 건 - 신아일보 등
- 횡성 영광의 하트세이버 수여식 외 건 - 소방방재신문 등
- 영월 승진자 인사발령 신고식 - 소방방재신문 등
- 평창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원 직위 소방안전교육 외 건 소방방재신문
- 정선 제 대 소기웅 정선소방서장 취임식 - 전국매일신문 등
- 철원 인사발령자 신고식 - 도민일보 등
- 인제 계곡 교립자 구조 - 도민일보 등
- 고성 심정지 환자를 살린 손길들 외 건 - 아시아뉴스통신 등
- 양양 영근조학과 학생 구급대 현장실습 - 강원일보 등
- 동정 원주소방서장 강원일보

폭우 예고했는데... 안전불감증 만연

등산객 등 40여명 고립 구조

집중호우시 야영·산행 위험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어 최대 200mm의 폭우가 예고됐음에도 강과 계곡을 찾았다가 물이 불어 행락객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등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3일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산간 계곡 등을 찾았다가 고립돼 구조된 행락객들은 이날 현재까지 4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4시 50분쯤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 인근 한 야영장에서 나모(73)씨 등 4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돼 지붕위로 대피했다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시간 만에 구조됐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 29분쯤 홍천군 서석면 미약골 인근 계곡에서 오모(61)씨 등 탐방객 12명이 불어난 계곡물로 고립됐다. 서울 산악회 회원인 이들은 하산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갇혔다가 2시간 30분 만에 구조됐다. 같은날 오후 4시 3분쯤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에서도 불어난 강물로 투숙객 24명이 고립됐다 1시간 10분 만에 구조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마철 산과 계곡을 찾을 때에는 기상상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설마 하고 방심했다가 늦게 대피하면 인명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집중호우시 계곡, 하천 등에서 야영 및 산행을 삼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지은 pje@kado.net

‘361mm 물폭탄’ 다리 무너지고 빗길사고 속출

홍천군 광원리 20여가구 고립
인제 국도·지방도 침수 잇따라
동서고속도 5중추돌 6명 부상

장맛비에 3일 홍천군 내면이 361.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도내 곳곳에서 비 피해와 사고가 잇따랐다. ▶관련기사 4·5·11·14면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5시20분께 홍천군 내면 광원리

가덕교 일부가 무너져 교량 안쪽 마을 20여가구가 고립됐다. 이날 오전 7시께 홍천군 남면 용수리 응아지나루터 인근 국도 7호선이 100m가량 물에 잠겨 교통이 통제됐다.

오전 6시40분께에는 인제군 기린면 현리 하답삼거리 국도 31호선의 교량이 40m 정도 침수됐으며 6시30분께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지방도 446호선에서는 전신주 3대가 쓰러지고 도로가 50m가량 유실됐다. 새벽 4시50분께 인제군 상남면 하

남리에서 내린천이 범람해 솔밭 야영장에 숙박 중이던 나모(73)씨 등 4명이 고립됐다. 이들은 오전 6시59분께 안전하게 구조됐다.

또 인제군 남면 관대마을에서 양구 경계 지역까지 국도 4호선에 토사가 유출돼 5시간가량 일방통행이 실시됐으며 같은날 오전 5시40분께 기린면 북리보건지소 앞 국도 31호선이 침수돼 1시간여 동안 양방향 교통이 통제됐다. 새로 개통한 동서고속도로 등에서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3일 오전 8시10분께 인제군 상남면 인근 동서고속도로 양양 방면 109.2km 지점 상남 4터널 입구에서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이날 오후 2시5분께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중앙고속도로 제천 방향 만종터널 인근에서 25인승 버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모(54)씨 등 탑승객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기영·김천열기자



동서고속도로 차량 5대 연쇄 추돌 3일 오전 8시10분께 인제군 상남면 인근 동서고속도로 양양 방면 109.2km 지점 상남 4터널 입구에서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해 6명이 다쳤다.

다리 유실로 마을주민 70명 고립·승용차 빗길 5중 추돌사고

홍천 누적강수량 340mm 넘어서
광원2리 내린천 가덕교 20m 유실
서울~양양고속도 빗길 교통사고
오대산 탐방로도 입산 전면통제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을 한번에 해소하는 반가운 비였지만 시간당 50mm이상의 폭우로 피해가 잇따랐다. 시흥간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홍천군 내면으로 누적강수량이 340mm를 넘어섰고, 마을을 잇는 교량이 무너져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컸다.

#주민·행락객 고립 구조

지난 2일 산과 계곡을 찾은 행락객 40명이 고립됐다 구조되는데 이어 3일에도 고립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홍천군 내면 광원2리 내린천 가덕교 일부가 불어난 강물을 견디지 못하고 약 20여m 유실돼 이 마을 주민 70명(20가구)이 고립상태에 처했다. 홍천군은 고립된 광원리 마을에 음식물과 물을 공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들과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4시 50분쯤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한 펜션에서는 투숙객 4명이 2시간 10분만에 구조됐다. 내린천이 범람하면서 투숙객들은 지붕위로 대피해 소방대원들의 구

조를 기다렸다.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민박집에서도 오전 9시 29분쯤 투숙객 7명이 고립됐다 2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사고 열목

이날 쏟아진 집중호우로 3건의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개통한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2건의 사고가 잇따랐다. 오전 8시 10분쯤 인제군 상남면 인근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양양방면 109.2km 지점 상남4터널 입구에서 장모(62)씨가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5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 6명이 다쳤다. 오후 5시 5분쯤 인제군 상남면 상남 6터널에서는 1.5t 화물차가 왼쪽으로 넘어져 화물차 운전자 1명이 다쳤다. 화물차에 적재된 건축자재가 도로로 쏟아지면 서 이 구간 차량 통행이 한때 정지됐다. 앞서 오후 2시 5분쯤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중앙고속도로 제천방향 만종터널 인근에서 유모(57)씨가 몰던 미니버스가 넘어져 유씨와 탑승객 등 6명은 스스로 버스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침수, 낙석 등 도로 통제 우회

장대비에 도로가 잠겨 홍천과 인제 지역 도로 5곳이 통제 및 우회조치됐다. 홍천은 내면 광원리 가덕교와 이일대 56번 국도, 남면 용수리 응야지나루터 군도 7호 등 3곳, 인제는 상남면 미산리 446번 지방도, 기린면 현리 하답산거리 31번 국도 등



3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양양방향 상남4터널 입구에서 빗길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었다.

2곳이 통제됐다. 교량이 무너진 홍천군 내면 광원리 가덕교와 이일대 56번 국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은 모두 통제해제됐다. 특히 교량이 무너진 홍천군 내면 이일대 도로 약 2km는 침수와 함께 약 5t의 토사가 유출돼 가장 피해가 컸다. 이와 함께 강릉시 입암동, 평창군 진부면 원

주시 귀래면 등 주택과 사무실 14곳은 폭우로 인해 배수구가 막혀 소방대원 등이 출동해 배수작업을 완료했다.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연이틀 쏟아진 폭우로 오대산국립공원 사무소는 상원사 진입도로 등 모든 탐방로를 5일까지, 설악산국립공원은 4일까

지 입산을 전면 통제한다. 지난해 산사태가 났던 오세암-마등령 구간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 시 추가 붕괴위험이 있어 우회 탐방로가 개설된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비가 그친 뒤에도 한동안 낙석,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산행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는

콘크리트 다리도 급류 못 버티고 일부 유실

홍천 내면 340mm 이상 폭우
접속도로 끊기고 주민 고립
주택 침수 등 비 피해 속출

홍천군하늘이뚝렸다.

지난1일부터쏟아진물폭탄으로 홍천군 관내 도로가 끊기고 야영객이 고립되고 일부 주택이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과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홍천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평균 220mm에 달했다. 특히 내면의 경우 34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내면 지역 일대에 피해가 집중됐다.

◇도로 유실·낙석·침수로 가구 고립
지난 주말동안 내린 집중 호우로 내면 지역의 교량이 무너지고 도로 유실과 토사 유출로 일부 가구가 고립되고 교통 통제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내면 광원2리 지역은 3일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가덕교의 지방도 446호 접속도로가 유실되면서 주



홍천군 내면 광원2리 지방도 446호 접속도로 교량인 가덕교가 3일 집중호우로 연결도로가 끊기면서 20가구 70여명이 고립됐다.

민 20가구 70여명이 고립된 상태다. 또 북방면 노일리의 다리가 침수되고 내촌면 와야리 비선교도 다리 교각 침하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동면 노천리에서는 낙석이 발생했고 홍천 남산강변로 식당 주변 계곡에서 불어난 물에 토사가 흘러 내려 한때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다.

◇고립 야영객 구조... 침수로 생활 불편
3일 오전 29분쯤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미약골을 찾은 탐방객 12명은 불안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119구조대에 의해 2시 30분 만에 전원 구조됐다. 또 북방면 한 펜션의 투숙객 10여명도 불어난 물에 도로가 침수되면서 발이 묶였다가 구조됐다. 또한 많은 비로 인해

지역별로 배수로 막힘으로 인한 가옥 침수, 토사 유출로 인한 비닐하우스 파손, 전신주 파손 등 생활민원 피해도 속출했다. 군은 읍면별로 피해상황을 파악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등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인제지역에 이틀동안 2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3일 남전리 88대교 밑 소양호 상류가 가뭄 해갈을 알리듯 거대한 물길로 변했다. 지난달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모습(사진 왼쪽)과는 대비된다. 최원명

간히고 끊기고 ‘물폭탄’에 초토화

**도 시간당 최대 50mm 폭우
고립·교량유실·낙석 피해
도로 통제·교통사고 속출
내일까지 150mm이상 예보**

도 전역에 시간당 최대 50mm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져 도로 침수와 교량 유실로 70여명의 주민이 고립됐고, 43명의 행락객이 구조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은 오는 5일까지 최대 150mm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지난 1일부터 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강수량은 홍천군 내면 361.5mm, 구룡령 294mm, 평창 진부 189mm, 강릉 주문진 181.5mm, 춘천 174.7mm 등 장대비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다. 내린 천 발원지인 홍천군 내면 광원리

양어장마을은 이날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로 마을을 잇는 교량 20여m가 유실돼 주민 70여명이 고립됐다. 3일 오전 9시 29분쯤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의 한 민박집에서 투숙객 3명이 고립돼 2시간여 만에 구조됐고, 오전 4시 50분쯤 인제군 상남면에서는 펜션 투숙객 4명이 불어난 강물에 고립됐다 구조대원들에 의해 겨우 빠져나왔다. 앞서 2일에는 홍천군 서석면과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일대 생태공원과 강을 찾았던 행락객 36명이 갑자기 불어난 계곡과 강물에 갇혔다 긴급 구조됐다.

침수와 토사유출, 낙석 발생으로 홍천과 인제에서 도로 5곳이 피해를 입어 교통 통제가 이뤄졌고 2곳은 완전 복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전 5시 13분쯤 홍천군 내면 광원리 56번 국도에 토

사가 쏟아져 1시간여 동안 도로가 막혔다. 오전 6시 40분쯤 인제군 기린면 31번 국도 기린방면 도로가 침수돼 차량들은 귀둔리 방면으로 우회조치됐다. 앞서 오전 1시 50분쯤 홍천군 연봉리 한 식당 주변 계곡에서 불어난 물에 토사 약 1t이 흘러내려 3시간여 만에 긴급 복구작업을 마쳤다. 연이틀 쏟아진 폭우로 오대산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탐방로도 5일까지 전면통제됐다. 지난달 30일 첫 개통한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양양방향 상남4터널에서는 3일 빗길 5중 추돌사고가 발생, 6명이 부상을 입는 등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도와 각 시·군은 비상근무에서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기상청 관계자는 “5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 안전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은

▶관련기사 5·7·12·15·16면

홍천
ON

폭우 피해 잇따라

G1 강원민방



어제부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홍천 내면에는 3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낮 한때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도내 곳곳에서 토사 유출과 낙석 사고가 잇따르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리포터]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한 비는 도 전역에 200mm가 넘는 비를 뿌렸습니다.

지난 2일부터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은 홍천 내면이 361mm로 가장 많고, 춘천 남산 252mm, 인제 신남 217mm로, 주로 영서내륙에 집중됐습니다.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제와 홍천 국도에선 각각 낙석과 토사가 흘러내려 응급 복구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인제 지방도 446호선에서는 도로 일부가 유실되고, 전신주 9대가 쓰러져 일대 80여 가구가 5시간 가량 정전됐습니다.

"정전이 새벽 3시인가, 4시부터 아침 8시반, 9시쯤 그 정도에 재개됐어요."

밤 시간대 집중된 폭우에 고립사고도 속출했습니다. 홍천군 내면 광원리 가덕교 일부가 폭우에 무너져 마을 주민 20여가구가 고립됐고,

인제군 상남면과 기린면에선 불어난 강물에 투숙객 7명이 고립됐다, 출동한 119 구조대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고랭지 배추밭 등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가뭄 해갈이 됐다고 농민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밭에 가보니 어제 갓 심은 배추가 지금 폭우를 맞아서 다 쓸려내려가서.."

빗길 교통사고도 발생해,

오전 8시 10분쯤 인제군 상남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상남4터널 입구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등 5대가 잇따라 부딪혀, 5명이 다쳤습니다.

오후 2시쯤엔 원주시 호저면 중앙고속도로 만종터널 인근에서 미니버스가 빗길에 넘어져 3명이 다쳤습니다.

낮동안 소강 상태를 보인 비는 도내 중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밤사이 다시 도내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영서지역은 1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산사태와 침수 피해, 야영객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뚝뚝에 끊기고 잠기고

춘천MBC



지난 주말부터 홍천군 내면 지역에 3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교량이 끊기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넓이 8m 정도되는 다리가 싹뚝 잘려나갔습니다. 다리 위까지 불어난 하천 물에 교량 일부가 쓸려나간 겁니다.

20여 가구 주민들은 마을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고립됐습니다.

◀ I N T ▶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네. 고립이죠 고립... 여기 초등학생이 2명 있

는데, 학교도 못가고 그렇죠."

사흘 동안 36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홍천 내면 지역은 곳곳이 쓸대밭입니다. 산사태가 난 곳입니다. 엄청난 양의 돌과 흙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토사가 읍내까지 쓸려 내려오면서 주민들이 모두 동원돼 진흙을 퍼내고, 물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 I N T ▶ "나무하고 찌꺼기가 내려오면서 배수로를 막은 겁니다. 산사태가 나서 전부 이 시장 안을 다 덮친 겁니다."

낙석 방지막이 힘없이 꺾여 버렸고, 도로 한쪽엔 돌덩이가 가득합니다. 도로 위에 쏟아진 낙석과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워낙 피해난 곳이 많아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집 안이 온통 진흙 범벅입니다. 택지 조성 현장에서 유실된 토사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 I N T ▶ "잠도 못 자고 가재도구와 전자제품 다 망가진 것 같고, 창고도 다 아수라장이 됐어요."

오늘 오전 8시 10분쯤에는 인제군 상남면 서울~양양고속도로 터널 입구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영서지역에 5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홍천 인제 집중호우 피해 잇따라

KBS  춘천



가뭄 속에 강원 전역에 기다린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홍천 내면에 360밀리미터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홍천과 인제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리포트] 시벨건 급류에 고무보트가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야영장 건물 지붕에 매달려 있던 주민 등 4명이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물 빠진 야영장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건물은 폭삭 내려앉았고, 급류의 기세에 차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나대현 / 요구조사 [인터뷰]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곳이에요. 요 자리에 있었죠. 이 자리에 얹혀 있었는데 이렇게 쓸려서 저 자리로 간 거죠."

집중호우로 강물이 밀려든 곳입니다. 원래 숲을 이뤘던 나무와 풀들이 이렇게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있습니다. 하천과 계곡 물은 황토물로 변했습니다.

인제 현리 정수장에는 탁한 흙탕물이 유입돼 한때 취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박종문 주무관 [인터뷰] "300NTU 이상의 흙탕물이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들은 취수 중단하거나, 배수지 물 이용해서"

홍천 내면에는 360밀리미터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교각이 내려앉고, 토사와 낙석이 쏟아졌습니다.

최덕규/내촌면 와야2리장[인터뷰]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교각이)주저앉는거지, 계속 파여나가니까."

이번 장맛비는 모레까지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이상 더 올 것으로 예보돼 피해 지역 주민들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제·화천... 야영객 고립 잇따라

토사 유출·터널 정전사고

인제지역에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최고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야영객이 고립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3일 오전 9시 31분쯤 인제 기린면 진동리 연가리마을터 계곡이 넘치면서 고립됐던 민박집 투숙객 3명이 긴급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2시간여만에 구조돼 무사히 귀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50분쯤에는 상남면 하남리 솔밭에서 고립된 야영객 4명이 구조됐다.

토사 유출과 도로 침수도 발생했다. 3일 오전 0시 40분 국도 31호선 밤골유원지 인근 도로에 토사가 유입됐고 이날 오전 6시 10분에는 기린면 북리보건지소앞 국도 31호선이 침수돼 2시간 동안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홍천 내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446호선 상남면

미산리 구간 도로도 일부 유실됐다.

평화의 댐으로 연결되는 화천 해산터널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정전사고가 발생,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도로관리사업소복부지사아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9시쯤 집중 호우로 지방도 406호선 해산터널 송전선로에 나무가 쓰러져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일 오후까지 터널 내 약 600개의 조명등을 밝히지 못했다. 이수영·최원명



지난 2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제 내린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 가운데 3일 기린면 서2리 마을 일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한 민박집 주인이 건물에 쌓인 부유물을 치우고 있다. 최원명

중앙고속도 만종터널 부근서 미니버스 전도 6명 부상



3일 오후 2시 5분쯤 강원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중앙고속도로 제천방향 만종터널 인근을 달리던 25인승 미니버스가 전도됐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유모씨(47) 등 탑승자 6명이 자력으로 탈출했으며 이중 손모씨(49) 등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왼쪽 경계선을 충돌한 후 오른쪽으로 전도된 사고"라고 밝혔다.

원주 중앙고속도로서 빗길 미니버스 넘어져 6명 부상



3일 오후 2시 5분께 강원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중앙고속도로 제천방향 만종 터널 인근에서 유모(57) 씨가 몰던 미니버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유 씨와 탑승객 등 6명은 스스로 버스 밖으로 빠져나왔으며 이 중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재출동 소방차 5분내 도착률 강원소방 하위권



도내 소방차의 화재 현장 5분내 도착 비율이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내 화재출동 소방차의 화재 현장 5분내 도착률은 52%로,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중 경북 경남 등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5분내 화재현장 출동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로 86%였고, 대전시 84%, 대구시 83% 등이었습니다.



119구급차 동승 실습 춘천소방서(서장:안중석)는 3일부터 28일까지 강원대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19구급차 동승 실습을 한다.

한국뉴스연합통신



원주소방서 대학생 소방행정 실습지도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6명과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학과 학생 5명은 7. 3일 원주소방서에서 오는 28일까지 4주간 소방현장 실습 실시한다.

이번 실습은 관·학 연계활동으로 소방서와 대학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소방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고취하며 소방관련 전문지식 및 보유자격을 현장에 적극 활용하여 실습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계획됐다.

실습기간 동안 학생들은 현장 출동부서인 안전센터에 배치되어 구급차량에 동승해 응급환자 처치 및 응대 요령 등 각종 응급상황 대처법을 체득함과 동시에 안전점검 현장에도 동행해 학교에서 배운 소방시설 점검법에 대한 이해와 숙달실습을 하게 된다.

원미숙 소방서장은 “이번 소방서 행정체험 및 구급차량 동승과 각종 소방 안전점검 현장 실습을 통해 소방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체득하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릉소방서 제 28대 이진호 강릉소방서장 취임식



강원 강릉소방서(서장 이진호)는 3일 오전 지하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대 이진호 소방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진호 서장은 지난 1988년 소방사 공채 임용됐다. 그 후 삼척소방서, 강원도소방학교, 강원도 소방본부 방호사법계장 등 중요 요직을 역임하고 제28대 강릉소방서장에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 신임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직원 상호 간 단결과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동해소방서(서장 김영조)는 3일 오전 9시 본서 서장실에서 7월 1일 자 급속 승진자 권현주, 정이화 소방위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계급장 부착 등 승진 임용식을 가졌다.

이날 소방위로 급속 승진한 두 사람은 부서 변동 없이 현 소속부서인 현장 대응과에 배치됐다.

김영조 서장은 “계급이 높아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며 “항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청렴한 소방상 구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동해소방서(서장 김영조)에서는 관내 화재취약 1가구(발한동 소재 최○○)를 선정하여 노후 전기배선 및 전기·가스기기교체,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이 2015년 2월부터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맡아 관리하고 있는 <119행복기금> 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동해소방서 서장(김영조)은 “소방공무원들이 기부하여 조성된 <119 행복기금>으로 화재피해주민 주거복구사업 및 저소득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 지원과 같은 나눔문화·안전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태백소방서 승진 인사발령자 임명장 수여식 가져



태백소방서(서장 석교준)는 3일 오전 11시 본서 서장실에서 승진 인사발령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발령자는 ▲지방소방위 심대영 ▲지방소방위 이석종 ▲지방소방위 김경우 등 3명이다.

석교준 서장은 “오늘 승진이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고와 경험이 쌓여 지금의 자리를 만든 것이다”며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활기차고 단결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속초소방서 장마철 대비 수방장비 점검



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는 3일 오전 10시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와 수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보유하고 있는 장비점검과 사용법 숙지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유 중인 수난구조용 보트, 수중펌프, 양수기에 대한 유지 관리상태, 조작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침수피해 발생 시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장마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진행했다.

정효수 시장은 “장마철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방장비 점검과 침수 예상지역 순찰하고 유관기관의 출동태세를 확립해 올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강원도민일보 **속초소방서 산호유치원 소방동요대회 대상수상**
kado.net



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는 지난 29일 원주시 백운아트홀에서 개최된 제18회 강원도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본서 대표로 출전한 산호유치원이 영예의 1위(대상)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강원도 각 시·군에서 유치부 7팀, 초등부 9개팀 총 16개 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으며 산호유치원은 어린이들의 감정과 정서를 담은 노래로 자연스럽게 안전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소방동요 중 6집 ‘잠깐만’을 대표곡으로 선정해 대상을 수상했다.

도 대회에서 1등을 한 산호유치원은 오는 10월 18일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정효수 시장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친근한 동요를 통한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됐으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준 산호유치원 합창단과 지도교사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속초소방서 시각장애인 대상 소소심교육



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는 3일 오후 1시 본서 대회의실에서 속초시 관내 시각장애인과 가족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소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소소심 교육과 함께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화재 초기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한 소화 방법,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방법,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요령 등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윤종진 방호구조과장은 “심정지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75%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간단한 응급처치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만큼 평소 교육을 통해 익혀둬야 한다”고 전했다.

주항중 삼척소방서장 취임식



제18대 주항중 삼척소방서장 취임식이 3일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 홍천소방서는 3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과 의용소방대연합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중 제16대 홍천소방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기중 소방서장은 원주 출신으로 1985년 원주소방서에 지방소방사로 첫 임용돼 원주소방서 현장지휘대장, 강원소방본부 기획예산담당, 정선소방서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 행정업무와 현장에서 탁월한 지휘통솔 능력을 발휘하는 등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기중 서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자로서 기본에 충실한 소방공무원이 되자"며 "프로정신을 바탕으로 자기역량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 활동 시 부족함이 없는 소방공무원이 돼 달라"고 말했다.

홍천뉴스 홍천소방서 박재민 임상순 대원에게 하계야외 수여



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7월3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심장이 정지된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구급대원 2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 및 배지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란 현장대원 또는 일반인이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사람으로 병원 도착 전에 심전도를 회복하고 병원 도착 후 생존한 경우 수여되는 인증서이다.

이번에 하트세이버 배지를 받은 현장대응과 소방사 박재문, 임상순 대원은 지난 4월1일 홍천군 소재의 모 군부대에서 아침 달리기 중 쓰러진 한 군인을 병원으로 이송 중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를 소생시켜 홍천 아산병원으로 이송했다.

이기중 홍천소방서장은 “하트세이버 선정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소방조직 전체의 자랑거리”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횡성소방서, 영광의 하트세이버 수여식



횡성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지난 1월 심정지 환자를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2명과 의무소방원 1명에게 하트세이버(Heart Saver) 인증서를 전달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21일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부압박, 제세동기로 전기충격 등 환자 소생술을 실시, 심방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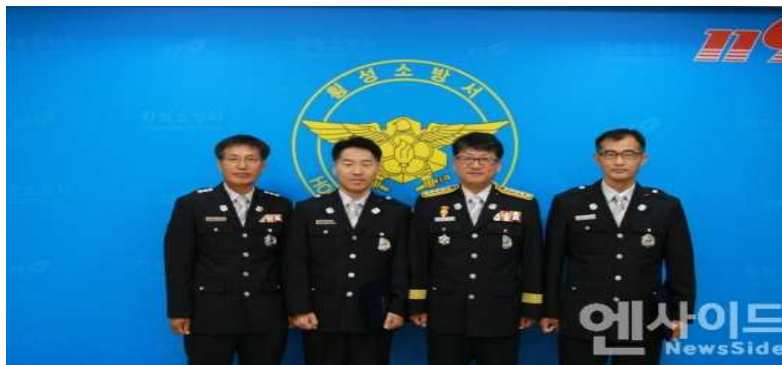
하트세이버는 ‘심장을 구하는 사람(인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구급현장·이송 중 자발순환 등을 회복시킨 구급대원, 일반시민 등과 상황실 요원에 대해 자긍심 고취를 통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향상 시키고자 운영되는 제도다.

이병은 서장은 “적극적인 처치를 실시해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낸 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써 달라”고 전했다.

횡성소방서 승진임용자 임용장 수여식 실시

엔사이드 NewsSide



횡성소방서(서장 이병은)는 3일 오전 09시 소회의실에서 승진임용자(2명)에 대한 임용 신고식을 했다고 밝혔다.

승진임용자 2명은 ▷지방소방위 김성기(119구조대) ▷지방소방위 최창수(둔내119안전센터)로 직원 10여명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병은 횡성소방서장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FPN Daily
Fire Prevention News

횡성소방서 강원대 응급구조학과 학생 급차 동승 실습

엔사이드 NewsSide



횡성소방서(서장 이병은)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4주간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3명을 대상으로 급차 동승 현장실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습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구급출동 시 구급차 탑승부터 병원 이송까지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병원 전 단계에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전문 응급의료종사자 양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책에서만 보던 사례를 몸으로 익힐 수는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길 바라며 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영월소방서 승진자 인사발령 신고식



강원 영월소방서(서장 강운종)는 3일 오전 본서 서장실에서 승진 임용자 직원 4명을 대상으로 승진 임용 신고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진임용은 지방소방장에서 지방소방위로 승진한 최일권, 배동기, 김두영, 김형철 대원 4명에게 각각 임용장이 수여됐다.

강운종 서장은 “초심자의 마음을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소방조직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평창소방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직원 소방안전교육



평창소방서(서장 남궁 규)는 3일 오전 10시 용평면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방법 및 실습, 자동제세동기(AED)사용법, 기도이물폐쇄 응급처치 방법인 하임리히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강원119신고앱 설치 교육도 병행했다.

평창소방서, 정년퇴임식



평창소방서(서장 남궁 규)는 지난 30일 평창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동화 소방위, 최선복 소방장의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남동화 소방위가 옥조근정훈장과 공로패를 수상했으며, 강원도 소방공무원 직원들의 석별패, 평창소방서 직원들의 재직기념패 수여식을 가졌다.

남동화 소방위와 최선복 소방장은 평창출신으로 각각 36년, 21여년간 소방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각종 현장활동에 솔선수범하여 동료 및 후배직원들의 귀감이 되었다.



제10대 소기웅(55·사진) 정선소방서장이 지난 1일자로 부임했다.

홍천 출신인 소기웅 서장은 1985년 소방공무원 임용 후 정선소방서 소방행정담당, 속초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강원도소방본부 구조담당 등을 역임했다.

소기웅 서장은 “정선군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성공적인 2018 평창동계 올림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철원소방서(서장 이석철)는 3일 오전 9시 서장실에서 서내 인사발령에 따른 승진·복직자 2명에 대한 신고식을 가졌다.

江原日報 토막소식

◇철원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안창도)는 6월 이달의 으뜸봉사자로 김우섭(적십자금학봉사회)씨를, 으뜸봉사단체로는 갈말여성의용소방대(대장:임미애)를 선정했다.



인제 계곡 고립자 구조 집중호우로 3일 오전 9시 31분쯤 인제 기린면 진동리 소재 연가리맑은터 계곡이 범람해 인제소방서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이용해 고립된 3명을 구조하고 있다.



인제소방서, 폭우로 인한 수난 고립 4명 구조



인제소방서(서장 박태원)은 3일 오전 4시경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에 위치한 민박집에서 폭우로 고립되어 지붕으로 대피하여 있던 요구조자 4명을 인제 수난구조대의 보트를 이용 전원 안전구조 하였다고 밝혔다.

사고 장소는 침수가 되지 않았던 지역이었으나 지속적인 폭우로 인해 불어난 물로 고립이 되었다.

인제 119 구조대장은 “여름철 폭우가 예상될 경우 물이 범람하지 않는 고지대 안전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성소방서 심정지환자를 살린 손길들



강원 고성소방서(서장 진형민)는 3일 오전 9시 10분 3건의 심정지 상황에서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구급대원 및 민간인 등 총 9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 및 배지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심장을 구한 사람)'란 심 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을 활용해 소생시킨 사람으로 병원 도착 전에 심전도를 회복하고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한 경우 수여되는 인증서이다.

진형민 서장은 "하트세이버 선정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소방조직 전체의 자랑거리"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고성소방서 2017년 상반기 자랑스런 고성소방인 선정



고성소방서(서장 진형민)는 2017년 상반기 '자랑스런 고성소방인상'에 거진119안전센터 박기동 소방장을 선정하고 3일 오전 9시 본서 소회의실에서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박기동 소방장은 2010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등 현장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올해 1급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자기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등 타인의 모범됐다.

박기동 소방장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자랑스런 고성소방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강원 양양소방서(서장 이수남)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4주간 장래 소방관, 특히 위급상황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4학년 2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습프로그램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졸업에 앞서 관·학 연계 활동으로 상호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 창출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해 현장 응급의료체계 및 소방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소방에 대한 이해 및 관심고취로 미래의 소방상 확립을 위한 주요 실습사항으로는 119구급대원 업무인지 및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공유, 응급환자에 대한 평가 및 응급 처치, 구급차 동승 현장 실습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4주 동안 장래 희망인 소방관들이 하는 업무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적성 확인 및 현장 활동 보조 역할을 맡게 된다.

김주훈 실습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책으로만 공부했던 이론 및 각 종 사례를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익혀 많은 것을 배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江原日報

2017/07/04 화
010면 지역



◇원미숙원주소방서장은 4일 오후 1시20분 문막읍 대둔리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행사를 개최.